

장애인 삶의 질 안정적 구축

전주시, 2016~2020 복지증진 계획 설명회

경제자립기반 강화 등 5대분야 60개 과제 추진

전주시가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복지서비스 확대 ▲경제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체육·건강서비스 확대 ▲교육·문화·예술 향유 확대 등 5대 분야 15개 중점사업, 60개 추진과제로 이뤄진 '2016~2020 장애인복지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삶을 자신 있게 바꾸기 위해 어울림 센터 건립 및 운영, 탈시설 전환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과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장애인의 삶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치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 장애인의 삶이 자유롭게 바뀌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장애인 전용 체육



전주시는 10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2020 장애인복지증진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관 건립 및 효율적 운영 ▲장애인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의 삶을 건강하고 여유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2020 장애인복지증진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 장애인의 욕구 특성에 맞는 중장기 장애인복지 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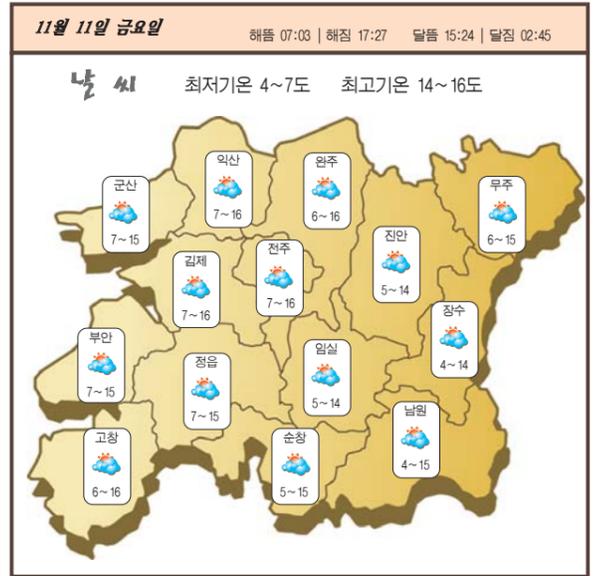
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욕구조사 및 탈시설화 연구 ▲전주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또, 7차에 걸친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및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유형별 희망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주시 장애인복지 관련 지역 사회의 수급을 진단해 '2016~2020 장애인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장애인들이 편

한 도시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유모차, 자전거 등 모든 시민들에게 편한 도시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 전문가들, 의회와 행정 등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 등록장애인은 총 3만2,978명으로, 이 가운데 53.4%인 1만7,625명이 지적장애인이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5,698명으로 가장 많고, 60대와 50대가 각각 4,109명과 4,037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기자



생태공간으로 변신 '가속도'

전주동물원, 사자 방사장 확장 곰·늑대사도 자연친화 신축

전주동물원이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을 인간과 동물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시설물을 제거한 후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동물원 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동물원이 단순 동물전시 기능을 넘어 동물의 본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는 교육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시는 내년에는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늑대와 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늑대사에는 종 보전을 위한 번식과 전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과 다양한 행동풍부화 요소를 제공하고, 곰사의 경우에도 곰들의 생태특성에 맞는 물웅덩이와 통나무 등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과 내부 관람로 확보 등 획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사자·호랑이사를 기존의 좁은 활동공간과 사자 위주의 오픈된 전시방법에서 나아가 활동공간을 2배 이상 확장하고 불인형 전시방법을 도입하는 등 동물서식환경과 관람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 치유 공간 확보, 동

물원의 종보존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동물병원을 신축하고, 동물 병원을 통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물치료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9월부터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15명의 동물생태 해설사를 통해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호랑이·사자사와 침팬지사, 곰사·큰물새장 등 주요동물사를 함께 들며 동물이 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동물원이 단순 동물전시의 기능을 넘어 동물의 본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는 교육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시는 내년에는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늑대와 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늑대사에는 종 보전을 위한 번식과 전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과 다양한 행동풍부화 요소를 제공하고, 곰사의 경우에도 곰들의 생태특성에 맞는 물웅덩이와 통나무 등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과 내부 관람로 확보 등 획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전주동물원을 동물이 단순히 전시되는 일반동물원에서 벗어나 동물이 주인공인 공간이자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고3 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

호원대, '호원 짱 특강단' 발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국내 최초로 고3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리더십(인성)특강단을 창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원대는 지난 9일 교직원 및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원 짱 리더십(인성) 특강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리더십 특강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주 동안 전국 200여개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대학진학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교생들이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뭘 하고 놀거니?', '너는 최고야!' 등의 주제로 리더십(인성)특강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원대학교 입학처(1588-977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도내 43개 전기 고교 원서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전기 고등학교의 원서를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특목고(전북외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3곳, 자율형사립고(군산중앙고, 남성고) 2곳, 특성화고(전문계열, 대안계열) 28곳, 일반고(예체계열, 전문계열) 10곳 등 모두 43개다.

지원은 전국적으로 1개 학교만 해야 하며 이중 지원을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다만,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고 및 일반고(전문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고민형 기자

오늘 고창서 진로교육박람회

11일부터 12일 이틀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고창 학교·마을 진로교육박람회가 열린다. 전북도고창교육지원청과 고창공동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군 28개 공동체, 관내의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진로교육박람회는 관내 교육기관인 '학교 밖 학교'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고창교육지원청에서 마련했다.

2016 고창 학교·마을 진로교육박람회는 지역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고창=김영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6

전북 노래 자랑

및 경연대회



11월 27일 삼성문화회관 소강당

- ▶ 주최: 전주매일, 환경일보사
- ▶ 접수: 11월 25일
- ▶ 예선: 11월 26일
- ▶ 후원: 전북도청, 전주시청
- ▶ 문의: 010-2131-0448(금병찬 환경신문본부장)

